

중국 미술관 건축의 유행과 고민

황문호
칭화대학 건축학원
박사과정

중국 미술시장의 팽창과 미술관의 증가

2016년 3월 1일 파리에서 발표된 ‘아트 프라이스 (Artprice)’와 AMMA(Art Market Monitor of ARTRON)의 ‘2015 세계 예술시장 연간 보고서 (Global Art Market Annual Report)*’에서 그동안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온 중국이 뉴욕에 정상의 자리를 넘겨준다.

20여 년 전 세계 미술계에 등장한**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막대한 부의 축적을 앞세워 2010년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 미술품들을 사들여 왔다. 소장 작품 수의 증가와 사회 공공의 요구로 자연스레 미술관 건설과 전시에 필요한 공간도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의 박물관 연도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전국 박물관의 수는 4,510개로 전년 대비 345개 증가하였다. 그중 국유 박물관은 3,528개(국가문물 부문 소속 2,798개)이고 비국유 박물관은 982개인데, 비국유 박물관은 171개 관이 늘어 국유 박물관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박물관의 소장 내용과 성격으로 구분하면 종합성 박물관이 1,743개, 역사 기념류가 1,840개, 예술류가 411개다. 예술류는 전체 비율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율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http://imgpublic.artprice.com/pdf/rama2016_en.pdf

** 중국 미술계에서는 14명의 예술가가 제45회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정식으로 참가한 1993년을 그 기점으로 삼는다.

*** 예술시장의 과열이 가장 심했던 2011년 중국 예술품 시장의 교역 총액은 2,108억 위안(약 35조 9,000억 원)에 이르렀다. 연 증가율은 24%에 달하였다.

**** 중국 문물 정보망(<http://www.ccrnews.com.cn/index.php/Xinwenzixun/content/id/>)

중국 미술관 건축의 현황과 문제점

분포의 불균형과 관리 능력의 부족

20세기를 전후하여 서구의 정치·경제·문화가 도입될 때 ‘서양경(西洋景)’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의 개념이 중국에 소개되었다. 중국 최초의 미술관은 1936년 국민당 정부 시절 수도 난징에 설립한 국립미술진열관(현 장수썩미술관의 전신)이다. 하지만 이후 1960년대 초 중국미술관과 상하이미술관이 설립되는 것 외에 1980년대 전후 현대 예술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술관 건설은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술시장의 확대와 도시계획에서 미술관이 문화의 지표로 작용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많은 자금을 미술관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당 인구 비례*에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베이징·상하이·광둥 등 대도시와 빠른 발전을 보이는 동부 연안에 위치하여 분포 역시 극

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미술관 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규모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데다 경험도 부족하여 관리 능력이 받쳐 주지 못하고,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품이 존재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 보관 창고나 전문 유지 인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예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작품들은 개인 부호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몇몇 대도시의 중요 미술관에서만 소장 구입이 진행되고 있다.

* 2013년 통계 자료에서 중국 자국민 40만 명이 한 박물관을 차지하는 비율

** 공공 미술관의 소장물품(2013)은 20여 만 건으로 중국 미술관에서 그 절반인 10만 건을 소장하고, 성급 미술관 중에서는 장쑤성 미술관이 1만 3,000여 건을 소장하고 있다. 그 밖에 많은 지방 미술관에 예술 소장품이 없는 것은 이미 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에 완공된 장수썩미술관 신관

자료: www.archdaily.cn/cn/601200/nanjing-art-museum-slash-ksp-jurgen-engel-architekten/50089f6628ba0d50da0013dc-nanjing-art-museum-ksp-jurgen-engel-architekten-image

©ksp jurgen engel architekten

규모 경쟁과 전문성·경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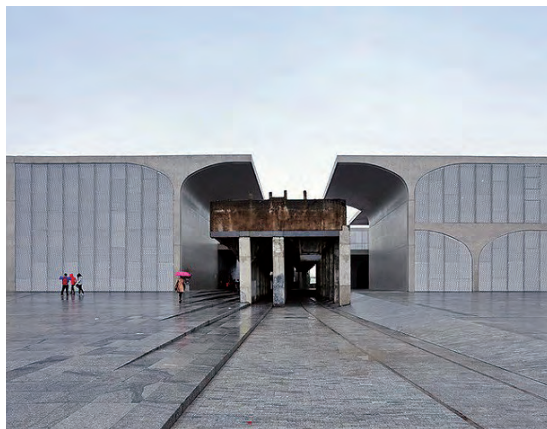
미술관 건설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와 지방정부들이 요구하는 ‘가오다상(高大上)’이다. 이는 고급스러움(高端), 당당함(大气), 품위 있음(上档次)을 의미하는 축약어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이다. 정부 계획자들은 국제 유명 건축가를 초대하여 설계하고, 서로 그 규모를 비교하며 지어지는 속도를 자랑한다. 각 성의 성회에서 최근에 건설된 것이나 건설 계획 중에 있는 미술관들은 대부분 면적이 4만m²를 넘는다. 중국 국가미술관 신관도 13만m²의 면적으로 계획되었다. 정부 계획자들에게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미술관은 도시 품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그러한 건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 건설 설계나 건설 단계에서 미술관의 기능에 대한 바른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전문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건축설계사들이 이전 작업 중 미술관 방면에 대한 설계 경험이 거의 없다. 더욱이 미술관 건축 표준 규범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그들에게 미술관 업무기능을 명확하게 요구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완공 후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가 부족한 데다 예술창작품에 대한 설계사들의 이해 부족으로 박물관 건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명이나 전람관의 층고, 전람 유통선에까지 불합리한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시 중심의 변화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근교의 신개발지역을 일명 문화·예술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말이 아닌 평일의 미술관람자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민영 미술관의 도약

중국의 미술관과 현대 예술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



© Su Shengliang

롱 미술관

자료: <http://www.archdaily.cn/cn/778009/long-mei-zhu-guan-xi-an-guan-da-she-jian-zhu>

가와 그 작품을 소장하는 수집가의 스토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1985년을 전후하여 예술 영역에서 사상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85사조(思潮)’라 불리는 이 활동들은 제6회 전국 미술 대전*의 반성이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젊은 청년 예술가들의 주도로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예술가들이 100여 개의 예술가 단체를 조직하여 예술 속 전통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진시나 문장을 통해서 표출하였다. 이는 그들의 시각을 열어 국제화 안목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당시 현대미술 초기 수집가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외국인들이었는데,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스위스 대사를 지낸 울리 지그(Uli Sigg)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중국에서 화랑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술가들에게서 직접 구하거나 중간 소개를 거쳐 작품을 수집하였다. 당시 그는 미술품 최대 소장자로서 예술가 230명의 작품 2,000개 이상을 소장하

* 1984년 10월, 문화부와 중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한 전국 미술 대전이다. 주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술경향을 경시한 탓에 따가운 비판을 받는데, ‘중앙미술학원사생의 전국미술대전에 대한 좌담회 기요(中央美院师生关于全国美展座谈会纪要)’(1985년 미술사조(美术思潮) 제1기)에 당시의 대전에 대한 예술가들의 생각이 들어 있다.

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 1,400여 개를 2017년 완공될 예정인 홍콩 'M+시각예술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중국 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외국인으로는 울렌스(Ullens) 부부도 있다. 이들은 현재 베이징 798예술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현대 예술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창작 작업 등을 하는 '울렌스 당대 예술중심(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의 창립인이다.

이러한 외국 소장가들에게 자극 받은 중국인 가운데 신흥 부자들이 1세대 수집가로 나서 막대한 재력을 앞세워 예술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중 관이(管艺)는 예술작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미술 애호와 감상을 목적으로 소장을 시작한 후 '관이당대예술문헌관(管艺当代艺术文献馆)'을 세웠다. 또 장루이(张锐)는 몇몇 소장품들이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후에 황랴오위안(黄燎原)과의 합작을 통해 '북경현재화랑(北京现在画廊)'을 창립하였다. 양빈(杨滨)이나 왕웨이(王薇)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지만, 양빈의 부인 엔칭(宴青)은 '예 미술관(AYE Gallery)'을 창립하였고, 왕웨이와 그의 남편 류이첸(刘益谦)은 '롱 미술관(Long Gallery)'을 세움으로써 중국 현대 예술이 크게 발전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민영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다른 한 유형으로 '팡디찬(房地产)', 즉 부동산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 있다. 쓰촨성 청두의 '상허미술관(上河美术馆)'은 예술의 이상과 부동산 산업을 서로 융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의 창립자들은 미술관이 회사 사업에 전략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에서 보급·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술관 건립에 참여하였다. 알려진 예로 화차오(华侨) 그룹에서 창립한 '화차오 창당대예술중심(华侨城当代艺术中心)'이나 쓰다이

(时代) 부동산의 광저우 '시대미술관(时代美术馆)' 등이 있다.

베이징의 사립 미술관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CBD 지역 모퉁이에 위치한 '금일미술관(今日美术馆)'은 앞에 소개한 두 방식을 합친 경우이다. 창립자인 장바오취안(张宝全)은 원래 부동산 상인이었으며 동시에 열렬한 예술품 애호 수집가였다. 그는 다른 민영 미술관에는 없는 연구와 교육의 기능들도 병행하며 부동산 계획 속에서 성공적인 민영 미술관을 꾸려가고 있다.

이처럼 민영 현대 미술관이 출현하는 것은 정부 공공 미술관이 보여주는 현대 예술 방면의 부족을 보충하고 소규모 미술관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중국의 젊은 건축가들은 물론 외국의 여러 설계사무소들에게도 건축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참고문헌

- 邵菁菁, “对于我国公共美术馆建设发展现状的思考”, 「中国美术馆(National Art Museum of China Journal)」, 2014년4期.
- 周琦, “西方建筑师在中国——从中国美术馆新馆的竞标说起”, 「建筑与文化(Architecture & Culture)」, 2013년11期.
- 崔天歌, 中国民营当代艺术美术馆的现状和美国经验的启示, 中央美术学院, 美术学2014硕士论文.
- 廖鹏, “当前我国公共美术馆建设现状分析”, 「艺术百家(Hundred Schools in Arts)」, 2015년1期.
- 诸迪, “当代中国美术馆的现状与问题”, 「美术(Art)」, 2013년3期.
- 都江, 伍长莎, 浅谈“85思潮”对当代美术的影响, 「美术界」, 2011년3期, 2011.3.15.